

# 母子간의 애착 및 母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夫婦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and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A Path Model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유 은 희  
부 교 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

Lecturer; **Eun Hee Yoo**

Associate Professor; **Seoung Yun Park**

###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요약 및 결론 |
| III. 가설적 인과모형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 Abstract >

Based on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system theor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struct a path model in which showed how adult son-mother relationship and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influence son's marital satisfaction. Predictor variables examined were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mother's dependency,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son's filial obligation, son's marriage years.

Data were analyzed from survey and structured interviews conducted with 111 families including married son, his wife and his mother.

Results indicated that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influenced directly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while the other variables had an indirect influence via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son.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received strong support.

## I. 서 론

가족연구자와 임상가들은 모두 가족을 몇개의 하위체계들(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각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다른 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elsky, 1981).

체계론의 입장에서 가족발달과 다세대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Bowen(1976)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심한 경우 부부간의 긴장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무능력등의 정서적 손상을 자녀에게 입힐 수가 있다고 한다. 또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균형있게 발달 되었을 때, 즉,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됐거나 또는 단절되지 않았을 때 자녀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결혼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자녀의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며(박찬미·서병숙, 1987, 최지희, 1984), 친족관계가 결혼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지적되었다(최규련, 1987). 같은 맥락에서 부부갈등의 주된 요인들 중의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며, 남편이 고부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우기 고부갈등은 증가 추세에 있음이 보고 되었다(고정자, 1988, 박영옥·한상순, 1987).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부체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의 결혼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체계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결혼만족도 연구는 국내의를 통해서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다. 더우기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가 우위에 있었고, 현대 한국 가족이 핵가족구조를 주로 이루고 있지만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의존성격이 매우 강하고 정서적측면에서도 최소한 부모세대, 성인자녀세대, 손자녀세대의 3세대의 정서적체계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들을(송성자, 1987) 비추어볼 때 한국가족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부부체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기혼자녀의 관계를 포함시켜 가족체계론적으로

연구해봄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발달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부모자녀의 bonding과 그 bonding에서 비롯된 심리적 동기로 설명하고 있어서, 부모-성인자녀간의 애착은 부모-성인자녀관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박성연, 1988).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부부중심적인 서구 가족과는 다른 한국가족에서의 결혼만족도 증진과 고부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아래, 부모 결혼관계와 모자간의 애착관계는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망(relationship network)을 형성하고 있는가? 또 이들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들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을 가족이라는 체계내에서 전생애적으로 발달해가는 상호호혜적 과정으로 보고 가족체계론과 애착이론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가설적 인과모형을 구성한 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에 관한 가족체계론적 접근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흐름에 의해 특 징지워지는 개방체계(open system)이다. 즉 총체로서의 가족은 가족구성원들 각자의 특성들을 합친 것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으며, 실제의 가족이 격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듯이 가족구성원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각 부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홍, 1984).

Minuchin(1974)의 구조적 가족체계론에 의하면 부부하위체계가 기능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체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방해로부터 부부체계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이룩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체계의 경계가 너무 이완되면 다른 하위체계(예: 형제, 인척)들이 부부체계의 기능을 방해하고, 반면에 경계가 너무 경직되면 긴장감과 격리감을 유발시킨다(김종옥, 1985). Minuchin 이론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Teyber(1981, 1983)는 부부간에 긴장이 생기는

경우 모자간에 세대교차적 하위체계가 형성되고 그 결과 청년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을 정서적관계체계(emotional relation system)로 규정 한 Bowen(1976)에 의하면 결혼전에 부모와의 정서적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고 자녀의 결혼후에도 이런 형태가 지속된다면 죄책감이나 경계선이 침입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부모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배우자가 단지 배우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등을 의미하여 배우자의 거부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함으로써 결혼 관계에 긴장이 올 수 있다(McGoldrick, 1980). 따라서 가족체계론적 접근을 하는 가족치료 이론 및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안정된 결혼관계는 부모-자녀간의 균형있는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부모자녀간의 균형있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자녀의 결혼생활도 만족스러울 것으로 가정된다.

## 2.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애착

애착이란 두 사람사이의 정서적 또는 애정적(Affectional)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애착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있는 인간의 내적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Ainsworth, 1982). 애착의 관계도 초기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 전생애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대상도 친구나 비가족원에게 까지도 발달되어 갈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Wynne, 1984).

애착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보이는 애착행동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일방적인 관계로서 연구가 되었었지만 그 후 어머니가 유아의 출생 직후에 보이는 애착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면서 애착모형을 체계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개념으로 대체되어지고 있다. Gans(1974)는 애착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feedback이 애착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Kalish & Knudtson(1976)은 노년기에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감소로 기존의 애착 대상들에게 적극적인 feedback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진

결과 분리의 불안, 무기력감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세대간의 유대관계를 연구한 가족사회학자들은(Bengtson et al, 1985) 성인의 애착을 아동기의 애착과는 다르게 애착행동과 애착감정을 독립된 개념으로 본다. 즉 왕래, 경제적도움, 서비스 등의 외현적 행동을 일컫는 애착행동과 부모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는 성향인 애착감정으로 나누고 애착행동이 꼭 애착감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부모의존성, 애착감, 성, 주거인접정도, 효도의무감 등의 함수적 관계로 이해한다(Weishaus, 1979). 우리나라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송현애(1986)에 의하면 자녀의 애착행동에 어머니의 의존도와 자녀로서의 의무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녀의 애착감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애착행동이 반드시 정서적 가까움이나 온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기혼아들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행동 대신 애착감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박성연(1988)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감정은 아들의 효도의무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감정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아들의 결혼지속년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 어머니의 결혼관계가 질적으로 높고, 아버지-어머니의 관계가 그 가족의 관계에서 주된 관계를 보이는 경우, 아들의 애착감정이 더 높았다. 또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감정에서는 배우자가 없고, 경제의존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애착감정이 더 높았다. 이제까지 애착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애착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이며 단지 애착발달의 과정에서 생의 각 단계마다,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따라 강도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자녀와 부모간의 애착관계는 상호호혜적이며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일련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애착행동 보다는 애착감정이 결혼만족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 3. 결혼만족도 연구의 경향

결혼전의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 아동기의 경험등과 결혼만족도와와 관계를 연구한 많은 국내의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결혼행복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박

찬미·서병숙, 1987, Lewis·Spanier, 1979). 박찬미·서병숙(1987)은 부모의 결혼행복도가 배우자에 대한 결혼만족도, 결혼의 안정성, 동료감, 친척과의 부조화들의 영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고, 최지희(1984)는 친가부모의 부부관계 뿐만아니라 시부모의 부부관계 화합도가 아들부부의 부부관계 상호작용의 질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잘 이루어지고 아동기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최지희, 1984).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결혼생활에 대한 좋은 model로서 자녀에게 전달되어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Lewis·Spanier, 1979). 한편 이정우(1973)의 연구에 의하면 핵가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절대다수의 기혼여성이 부모가 정과 자녀가정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부모와의 문제는 부부갈등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의 주된 요인으로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혜경, 1987; 박영옥·한상순, 1987). 또한 고부갈등의 발생원인은 애정구조적요인이 가장 큰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명숙, 1985; Baden & Cowan, 1987).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체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성장배경 변인으로서 부모의 결혼관계나 부모자녀관계도 단지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 정도만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가족체계 이론이나 애착발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박찬미·서병숙, 1987; Lewis & Spanier, 1979) 살펴보면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며,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기혼아들과 어머니의 정서적관계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된다.

### III. 가설적 인과모형

앞에서 고찰한 가족체계론, 애착이론,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아들부부의 결혼기

족도와 모자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선정했다.

#### 1.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의존도, 아들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

##### 1)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체계론에서는 어머니의 결혼관계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했고 生家(family of orientation)에서 경험되었던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순서적으로 제시했다(Bowen, 1976, Minuchin, 1974). 결혼만족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결혼행복도 및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다(Lewis·Spanier, 1979). 따라서 어머니의 결혼관계, 어머니의 애착, 아들의 애착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되고 또 어머니의 결혼관계는 어머니의 애착과 아들의 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된다.

##### 2) 부모의 의존도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의존성 증대는 자녀에게 부양의 중대를 가져옴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이 보고되어(송현애, 1986; Cecirelli, 1983)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예측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과 경제적 의존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 3) 아들의 효도의무감

효도의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직접 관련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도시의 주부들이 보다 전통적 효도관을 갖고 있는 농촌주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낮았음이 보고되었고(서병숙·김윤, 1983), 전통적 효사상이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를 우위에 두므로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젊은 도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아들의 효도의무감은 부적인 영향을 주리라 가정된다.

##### 4) 아들의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는 결혼기

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와 결혼초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가 그후 점차 감소되고 후기에 다시 높아지는 곡선적 관계에 있다는 두가지로 분류되나(Miller, 1976), 본 조사의 대상자가 결혼기간이 5년이하이고 앞으로 자녀양육등의 발달과업이 증대되리라 보므로 결혼지속년수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측된다.

**2. 母子간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의 의존도, 아들의 효도의 무감, 결혼지속년수.

**1) 부모의 결혼관계**

가족체계론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심한 경우 부부간의 긴장이 자녀에게 투사되고 자녀와 지나치게 말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Bowen, 1976, Minuchin, 1974). 따라서 어머니의 결혼관계는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2) 부모의 의존도**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전생애를 통해서 발달하는 상호호혜적 정서체계이므로(Gans, 1974),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과 정서적 의존은 모자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주리라 예측된다.

**3) 아들의 효도의무감**

효도의무감은 한국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가치관으로서 자녀에게 노인부모의 부양 또는 의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므로(송현애, 1986) 모자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4) 아들의 결혼지속년수**

아들의 결혼지속년수는 어머니에 대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는 노년기 또는 노년기 후기로 접어들고 자녀는 중년기로 진입해가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호혜(reciprocity) 능력수준과 애착대상의 범위에 변화를 가져오므로써(Kalish & Kundtson, 1976; Weiss, 1982)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에서 선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가설적 인과모형으로 구성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와같은 가설적 인과모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 어머니의 결혼관계, 어머니의 의존도, 아들의 효도의무감과 결혼지속년수, 어머니의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에 영향을 줄 것이다.

I-1. 어머니의 결혼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2.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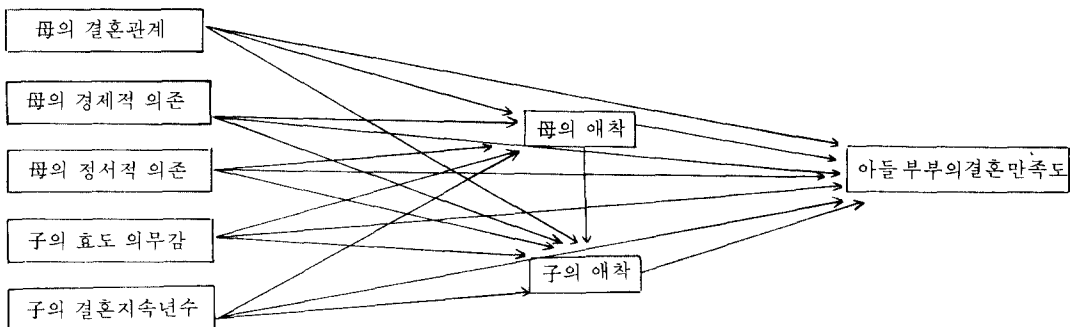
I-3.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낮을 것이다.

I-4. 어머니의 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5.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6. 아들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은 낮을 것이다.

**가설 II :** 어머니의 결혼관계와 의존도, 아들의 효도의무감과 결혼지속년수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그림 1] 아들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

애착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1. 어머니의 결혼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I-2.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이 높을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I-3.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이 높을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I-4.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높을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높을 것이다.

II-5. 아들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낮을 것이다.

**가설 III** : 어머니의 결혼관계, 모자간의 애착관계, 어머니의 의존도, 아들의 효도의무감과 결혼지속년수는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I-1.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III-2.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III-3. 어머니의 결혼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III-4.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III-5.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III-6.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III-7. 아들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한지 5년 이내<sup>(1)</sup>의 아들부부와 아들의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는 조사된 질문지 총 140조(420부) 중 일정한 반응들을 보여 응답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된 29조의 질문지는 제외하고 111조의 질문지 응답에 기초하여 분석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의 평균연령은 30세였고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83.8%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 출생순위면에서는 대부분이 장남(69.4%)이었으며 결혼기간의 3년 미만이 64.8%였다. 아들부인을 평균연령이 28세였고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77%로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다. 취업유무에서는 비취업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평균 수입은 30~50만원이 3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5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7%였다. 어머니는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었고(74.8%)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59.9%였다. 경제적 의존정도에서는 독립해 있는 경우가 55%였으며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45%였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결혼관계 측정도구

어머니의 결혼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RI) (1978) 중 일부를 발췌번안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대신 RI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 50대 60대 부인의 결혼관계측정에서는 주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흔히 쓰이고, 문화적배경이 다른곳의 적용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결혼적응 척도보다 더 신뢰도나 타당도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Schumm et al, 1986). RI는 부부간의 자기표출 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MO형과 OS형 두가지로 되어 있다. MO형은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형태이고 OS형은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묻는 형태이다. 예비조사 결과 MO형의 신뢰도는 몹시 낮았고 양적 내용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질적내용으로된 존중감과 감정이입에 관한 문항을 각각 4개씩 선정, 8개 문항으로 자기표출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대상자가 50~60세일 것을 고려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척도도 하여 8~32점 점수범위를 가지며, 자기표출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스런 관계임을 뜻한다. 이 척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 .80을 나타내 신뢰로운 도구로 볼 수 있다.

(1) 자녀의 결혼 초기에 자녀가족과 부모가족 사이에 새로운 경제설정의 형성되므로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아들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성격 N=111

	구 분	N (%)
아들의 연령	만 26세 이하	3 ( 2.7)
	만 27~28세	24(21.6)
	만 29~30세	37(33.3)
	만 31~32세	212(18.9)
	만 33~34세	21(18.9)
	만 35세 이상	5 ( 4.5)
	계	111(100)
아들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9 ( 8.1)
	대중퇴, 전문대졸	9 ( 8.1)
	대졸	58(52.3)
	대학원 재학 이상	35(31.5)
	계	111(100)
아들의 출생순위	장 남	77(69.4)
	기 타	34(30.6)
	계	111(100)
아들의 결혼기간	1년 미만	28(25.2)
	1~2년 미만	29(26.1)
	2~3년 미만	15(13.5)
	3~4년 미만	17(15.3)
	4~5년 미만	21(18.9)
	무응답	1 ( .9)
	계	111(100)
아들의 자녀유무	무	39(35.1)
	유	72(64.9)
	계	111(100)
아들부인의 연령	만 24세 이하	6 ( 5.5)
	만 25~26세	30(27.0)
	만 27~28세	31(27.9)
	만 29~30세	27(24.3)
	만 31~32세	11 ( 9.0)
	만 33세 이상	5 ( 4.5)
	무응답	1 ( .9)
	계	111(100)
아들부인의 취업유무	유	27(22.9)
	무	84(77.1)
	계	111(100)
아들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 ( .9)
	고졸	10 ( 9.0)
	대중퇴, 전문대졸	67(60.4)
	대졸	10 ( 9.0)
	대학원 재학 이상	1 ( .0)
	무응답	1 ( .0)
	계	111(100)
아들부부의 생활수준 (월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5 ( 4.5)
	30~70만원	42(37.8)
	50~70만원	25(22.5)
	70~90만원	22(19.8)
	90~110만원	10 ( 9.0)

	110만원 이상	6 ( 5.4)
	무응답	1 ( .9)
	계	111(100)
어머니의 연령	49세 이하	4 ( 3.69)
	50~54세	30(27.0)
	55~59세	45(40.5)
	60~64세	26(23.4)
	65세 이상	6 ( 5.41)
	계	111(100)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8 ( 7.2)
	고졸	22(19.8)
	대중퇴, 전문대졸	21(18.9)
	대졸 이상	42(37.8)
	대졸 이상	18(16.2)
	계	111(100)
어머니의 배우자관계	배우자와 함께 산다	83(74.8)
	이혼, 별거, 사별	28(25.2)
	계	111(100)
경제적 의존정도	독립적	61(55.0)
	부분적으로 의존	24(21.6)
	전적으로 의존	26(23.4)
	계	111(100)

### 2)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Bengtson, Mangen & Landry (1985)가 개념화한 애정적 유대(affectional Solidarity)를 근거로 온정, 친밀함, 신뢰, 이해, 존경, 의사소통에 관한 12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점(아주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었으며, 점수범위는 12~48점이고 점수가 많을 수록 애착이 강하다. Cronbach  $\alpha$  계수로 측정된 신뢰도는 .81이었다.

### 3)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의존도

어머니의 의존도는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도움을 어느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의존과 경제적 의존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정서적 의존을 Hagestad(1984)의 연구와 Cecirelli(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정서적 지원, 대화의 요구,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 등에 대한 문항 4개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했고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많을 수록 의존성이 큰 것이다. Cronbach  $\alpha$  계수로 측정된 신뢰도는 .72였다.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어머니에게 현재 생활비의 조달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 부분적으로 의존, 독립해서 한다는 3가지로 분류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 4)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감정은 Cecirelli(1983)가 애착감의 요소로 지적한 감정적 친밀감, 가치의 합일, 행동적 일치, 특성적 일치에 근거하여 9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9~45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 수록 애착은 강하다. 신뢰도는  $\alpha = .88$  이었다.

#### 5) 아들의 효도의무감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무감 측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Seelbach & Sauer, 1977) 7개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된 이들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7점부터 35점까지의 점수 범위중 점수가 높을 수록 효도의무감을 크게 갖는다.

#### 6)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란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등의 주관적 감정이다(Hawkins, 1988).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일치되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타당도가 높음이 충분히 검증된(이연주, 1985) Roach, Frazier, Bowden (1981)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했다. M.S.S.는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문항신뢰도가 낮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14개 문항은 제외되었다. M.S.S.는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의 두 범주로 구성되었는데, 부정적인 문항은 재범주화하여 점수를 주었다.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했고 점수의 범위는 34~170점이며 점수가 많을 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 응답은 아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Cronbach  $\alpha$  계수는 .94였다.

### 3. 연구절차

대학원생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부부를 대상으로(26조) 1987년 12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거친후 1988년 2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대학원생들을 통해 직접면접 또는 설문지 의뢰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위한 분석은 어머니-아들부부 111조의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가설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recursive 경로모형에 의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적 효과는 중다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하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beta$  계수를 사용했고, 0.05 수준에서 지지받지 못한 경로계수는 기각되었으며 그 경로 또한 인과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모자간의 애착수준과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사이에 곡선적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애착, 아들의 애착점수를 상中下의 집단<sup>(2)</sup>으로 나누어 ANOVA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인과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상관시키는 작업은 피하고 부모와 성인자녀부부 사이의 정서적 체계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모자간의 애착관계는 상호호혜적 관계이나 recursive 경로모형에 준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애착이 아들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경로만 포함시켰다.

### V. 결과 및 해석

인과모형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높지가 않으므로 독립변수들간의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고 본다. (표 3)은 가설적인 인과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회귀분석표이다. (표

(2) 애착점수의 상中下 집단을 애착정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애착과 분리가 균형있게 발달됐다고 볼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빈도상 상위권 10%를 위의 집단, 하위권 10%를下的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그 나머지는 중간집단에 속하게 하였다.



< 표 2 > 변인들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평균, 표준편차 (N=111)

	1	2	3	4	5	6	7	8
1 母의 결혼관계	—							
2 母의 애착	.1782*	—						
3 母의 정서적의존	-.1051	.1064*	—					
4 母의 경제적의존	-.1003	.2505**	.1619*	—				
5 子의 효도의무감	-.0381	.1214	.1690*	.0371	—			
6 子의 결혼지속년수	.0330	.0900	-.1463	.3795**	.0173	—		
7 子의 애착	.2276**	.2577**	-.0930	-.0202	-.4808**	-.1817*	—	
8 子의 夫婦의 결혼만족도	.1643*	.3133**	-.0748	-.0535	.9710	-.1436	.3204**	—
평균	22.08	34.59	12.40	1.69	24.25	2.77	30.49	130.33
표준 편차	4.16	4.43	2.83	.83	3.05	1.46	5.96	1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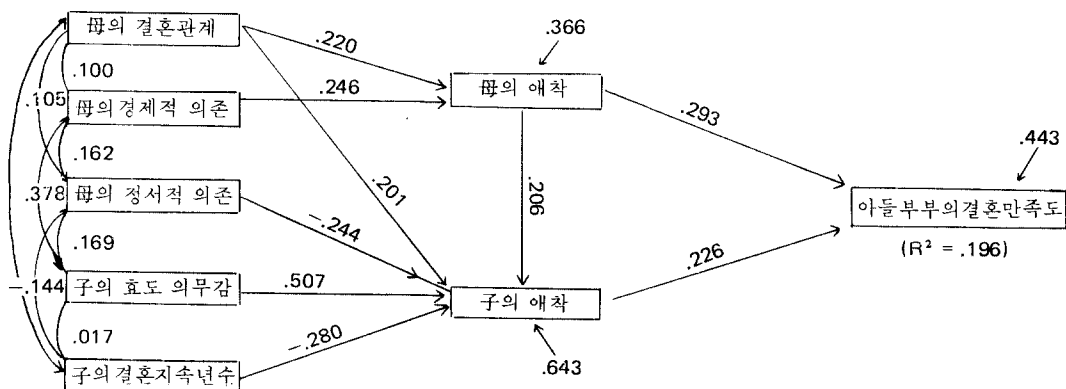
\*p<.05    \*\*p<.01

< 표 3 > 모델에서 변수들간의 회귀분석표 (N=111)

독립 변수	종    속    변    수		
	子夫婦의 결혼만족도	母의 애착	子의 애착
母의 결혼관계	.191 ( .047)	.234 (.220)***	.288 ( .201)***
母의 경제적의존	-.077 (-.053)	1.311 (.246)***	.540 ( .075)
母의 정서적의존	-.574 (-.097)	.201 (.128)	-.513 (-.244)***
子의 효도의무감	-.246 (-.051)	.215 (.099)	.862 ( .507)***
子의 결혼지속년수	-1.418 (-.123)	.125 (.099)	-1.138 (-.280)***
母의 애착	1.111 ( .293)***	—	.276 ( .206)***
子의 애착	.639 ( .226)***	—	—
Constant	87.821	21.214	-.612
R <sup>2</sup>	.196	.134	.414

\*\*\*p<.001    \*\*p<.01

+ (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이다.



(그림 2) 아들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4>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인들과 인과적·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 수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A	B	C	D(=B+C)	A-D
母的 결혼관계	.164	.	.049	.049	.115
母的 경제적의존	-.054	.	.015	.015	-.069
母的 정서적의존	-.075	.	-.055	-.055	-.020
母的 애착	.313	.293	.047	.340	-.027
자의 효도의무감	.071	.	.115	.115	-.044
자의 결혼지속년수	-.144	.	-.063	-.063	-.081
자의 애착	.320	.226	.	.226	.094

\*총체적 관계는 단순 상관계수(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임.

3)에서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만으로 인과모형을 구성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따라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의 애착에 대한 母的 결혼관계, 의존도, 애착, 자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의 영향력

아들의 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아들의 효도의무감과 결혼지속년수, 어머니의 결혼관계, 애착, 정서적의존 등이며 이들의 설명력은 41.4%이다. 즉, 어머니의 애착과 결혼관계의 질이 높을 수록,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높을 수록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높았는데 비해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이 높을 수록 아들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아들의 애착은 낮아졌다. 따라서 <가설 I-1>, <가설 I-3>, <가설 I-4>, <가설 I-5>, <가설 I-6>은 지지됐으나 <가설 I-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여기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데 비해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은 부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의존과 부모자녀간의 애착사이에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Arling(1976)의 보고와, 어머니의 의존도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갈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송현애(198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은 그 자체가 모자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자간의 애착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상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가 심하리라 추측되는 하류집단에서는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는 주로 경제적 부양을 받고 딸에게서는 정서적 부양을 받고있는 한국가족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아들에게는 기대되지 않는 정서적 의존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했을 때는 아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중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beta=.507$ )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어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 효도의 무감이 아직도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의 결혼지속년수는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애착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아동기 때보다 적어진다는 Weiss(1982)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들의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들의 애착감정이 자신의 자녀나 부인에게도 확대되어지면서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감은 줄어들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2) 母的애착에 대한 母的 결혼관계, 의존도, 자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의 영향력

어머니의 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어머니의 결혼관계와 경제적 의존이며 이들의 설명력은 13.4%이다. 즉 어머니의 결혼관계의 질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록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높았다. 그러므로 <가설 II

-1), (가설 II-2)는 지지되었지만 (가설 II-3), (가설 II-4), (가설 II-5)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특히 아들의 결혼지속년수가 아들의 애착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데 비해 어머니의 애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은 어머니와 아들 각자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머니의 애착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 $\beta=.246$ )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3)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母子간의 애착 관계, 母의 결혼관계, 의존도, 子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의 영향력**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변인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19.6%이다. 또 모자간의 애착정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변량분석 결과 (표 5), (표 6)에서 처럼 아들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아 졌으며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한편 임상적 자료에서는 모자간의 애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애착 수준이 중간범위에 있을 때 즉 애착과 분리가 균형있게 발달했을 때 결혼 만족

도가 높다고 하여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는 곡선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어머니의 애착과 아들의 애착이 모두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족체계론 보다는 아동기 때의 부모와의 애착이 잘 발달될수록 그 후의 다른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다고하는 애착발달의 이론과 일치했다. 이것은 본 자료가 어머니의 애착점수(평균=34.59)와 아들의 애착점수(평균=30.49)가 비교적 높고 점수분포가 중간범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모자간의 애착이 극단적인 대상들을 포함시켰다면 곡선적 관계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면에서는 어머니의 애착( $\beta=.293$ )이 아들의 애착( $\beta=.226$ )보다 약간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대 한국 가족이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을 많이 이루고 있다해도 내적인면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하고 결혼후에도 확대가족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결혼관계는 (표 4)에서처럼 직접적인 효과는 주지 못했고 단지 아들의 애착과 어머니의 애착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만 주었다. 이것은 부모의 결혼관계는 결혼생활의 model로서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 (Lewis & Spanier, 1979) 보다는, 부부체계는 부모자녀체계에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관계는 결혼후의 결혼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체계론적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과 정서적 의존의 변인들도 예측과는 달리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주지 못했고,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은 어머니의 애착을 매개로 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은 아들의 애착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만 주었다. 그러나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경제적 의존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비해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은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인부모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아들이 하고 정서적 부양은 딸이 수행하고 있는(송현애, 1986) 우리의 관습과 관계하여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존성 증가는 부모와 자녀세대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가족관계에 긴장을 일으

**<표 5> 아들의 애착정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량 분석**

어머니의 애착정도	아들 부부의 결혼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上	9	143.44	11.66	5.96**
中	92	130.40	16.85	
下	10	117.90	11.24	

\*\*p<.01

**<표 6> 어머니의 애착정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량분석**

어머니의 애착정도	아들 부부의 결혼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上	9	147.33	10.80	8.76***
中	93	130.63	15.80	
下	9	116.44	19.05	

\*\*\*p<.001

킨다는 Baruch · Barnett(1983)의 주장과는 달리 부모의 의존성을 부모자녀가 수용하는 관습, 부모자녀간의 기존관계등에 따라서 자녀의 결혼생활에 주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아들의 효도의무감도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주지 못했고 단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을 통해서 간접적 효과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효사상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현대 젊은 부부들의 결혼생활과 상충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효과가 (.115) 어머니의 애착과 아들의 애착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즉 한국의 결혼만족도 연구들에서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김혜선, 1982)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절대다수가 부모가정과 자녀가정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이정우, 1973) 지나친 부부중심주의나 이기적인 자녀중심적 태도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아들의 결혼지속년수는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는 주지못하였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충량·이효재(1970)의 보고와는 달리 아들의 애착을 통해서 단지 간접적으로만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가설 III-1), (가설 III-2)는 지지되었지만 (가설 III-3), (가설 III-4), (가설 III-5), (가설 III-6), (가설 III-7)은 지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모자간의 애착이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아니라 어머니의 결혼관계, 어머니의 경제적, 정서적의존, 아들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 등의 모든 변인들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에서 기혼아들과 어머니의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관계와 모자간의 애착관계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가족체계론과 애착이론을 근거로 인과적모형을 세우고자 하였다.

어머니와 아들부부 111조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결혼관계와 기혼아들과 어머니의 애착관계를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지어 세운 가설적 인과모형은 자료분석의 결과 지지되었다.

둘째,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의 결혼관계,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 아들의 효도의무감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정서적 의존과 아들의 결혼지속년수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의 결혼관계와 경제적 의존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뿐이었다. 어머니의 결혼관계, 정서적 의존, 경제적의존, 아들의 효도의무감, 결혼지속년수 등의 변인들은 모두 모자간의 애착관계를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만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모자간의 애착관계가 영향을 주고 부모의 결혼관계는 모자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의 결혼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관계는 다시 자녀의 결혼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족체계론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직선적인 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체계론적 가족 치료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곡선적 관계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이 미소하나마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사실과, 부모자녀관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효도의무감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결혼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 인과모형에서 제시된 모든 독립

변수들이 모자간의 애착관계를 매개로 해서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있는 사실들은 앞으로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단지 부부관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시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연구해야만 되는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 보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아들부부와 어머니 모두가 고학력의 중상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 시키는데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탐색적 수준에 그쳤으며,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관심영역의 변수들만 포함시켰다는 점, 척도의 타당도가 보다 확대된 표집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치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족체계론과 아동발달의 애착이론을 가족관계학에 도입시켜 성인자녀와 부모사이의 관계를 매개변수로 하여 부모의 결혼관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를 인과적으로 구성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성인자녀—부모관계 및 결혼만족도의 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델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고정자,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988, 129-160.
2. 김종욱, 가족치료의 이론과 기법—체계론적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아산, 동계호, 1985, 96-109.
3. 김혜경,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4. 김혜선,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5. 박성연, 母의 결혼관계와 母—기혼자녀간의 애착에 관한 연구,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8.
6. 박영옥, 한상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987.

7. 박찬미, 서병숙,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987.
8.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자료, 홍익제, 1987.
9. 서병숙, 김 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과 안동지역들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983.
10.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1. 이명숙, 미혼여성의 고부관계 태도에 대한 비교연구, —근로여성, 여대생, 여교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2. 이명홍, 가족치료의 기본원리와 Growth-orientted approach에 관한 연구, —Ackerman model과 Bowen model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지, 6, 1984.
13. 이신영,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4. 이연주,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5. 이정우, 대도시 중류가정의 가족관계, —양친가정과 아들부부 가정간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7, 1973.
16. 정충량, 이효재, 도시부부 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중류가정을 중심으로—, 논총, 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0.
17. 최규련,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8. 최지희, 결혼전후환경이 부부관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9. Ainsworth, M.D.S.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kt, In C.M. Pakrkes S. Hinde (Eds.), *The Placement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1982.
20. Arling, G.,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1976.
21. Baruch, G. & Barnett, R.C., Adult daughter's realtionships with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983.
22. Baden, R.M. & Cowan, D.,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the effects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s*, 36, 1987.
23. Belsky, J.,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sti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81, 3-23.
24. Bengtson, V.L., Mangen, D.J. & Landry, P.H. Jr.,

- The multi-generation family: Concepts and findings, In V. Garms, Homolova, E.M. Horering & D. Schaeffer (Ed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985.
25. Bowen, M.,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Gardner press, 1976.
  26. Cecirelli, V.G.,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3), 1983.
  27. Gans, H., Preliminary Pilot Study on reported genesis of intimacy relationships, *Personala Commun*, 1974.
  28. Hagedsted, G., Multi-generational families; Socialization, Support and Struin, In V.G. Homolova, E.M. Hoering, D. Schaffer (Ed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New York; Hogrefe, 1984.
  29. Hawkins, J.L.,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 1968, 647-650.
  30. Kalish, R.A. & Kundtson, F.W., Attachment versus disengagement; A Life-Span conceptualization, *Human Development*, 19, 1976, 171-181.
  31. Knudtson, F.W., Life-span attachment; Complexities, Questions, Consideration, *Human Development*, 19, 1976, 182-196.
  32. Lewis, R.A. & Spanier, G.B.,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Research-based theories*, N.Y., 1979.
  33. McGodrick, M., The joining of families through marriage: The new couple in E. Carter & M. McGoldrick (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1980, 93-120.
  34. Miller, B.C., A multivariate develop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1976, 643-657.
  35.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4.
  36. Roach, A.J., Frazer, S.R. & Bowden, S.R.,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1981, 537-546.
  37. Schumm, W.R., Barnes, H.L., Bollman, S.R., Jurich, A.P. & Bugaighis, M.A.,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revisited, *Family Relations*, April, 1986.
  38. Seelbach, W. & Sauer, W.,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morale among aged persons, *Gerontologist*, 17, 1977.
  39. Teyber, E., Structural family relations; A review, *Family Therapy*, 8(1), 1981.
  40. Teyber, E., Effects of parental coalition on adolescent emancipation from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9(3), 1983.
  41. Thompson, L. & Walker, A.J.,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May, 1984.
  42. Wampler, K.S. & Powell, G.S., The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as a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1982, 139-145.
  43. Weiss, R.A.,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M. Parkes & J.S. 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1982.
  44. Weisshaus, S., Aging is a family affair, In P.K. Ragan (Ed.) *Aging Parents*,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9.
  45. Wynne, L.,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3), 1984.